

광주·전남 하루 6건 꼴 아동 학대라니...

지난해 신고 2220건으로 2년사이 2배 급증

정서적 학대·방임·신체적 학대 순...중복 학대도 많아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범죄 심각성 알려지며 신고 늘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2220건에 달했다. 2014년 1000건을 넘어선지 2년만에 갑질 가장 급증했다. 광주·전남에서만 하루 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한 것은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6년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220건(광주 587, 전남 1633)이었다. 이는 전년 1436건(384, 1052)보다 54.6%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12년 795건(광주 242, 전남 553)이던 신고 건수가 2013년 920건(279, 641), 2014년 1211건(283, 928)으로 1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15년 1436건(384, 1052), 지난해 2220건으로 5년 사이에 179% 급증했다. 광주는 143%(242→587건), 전남은 195%(553→1633건)로 3배 가량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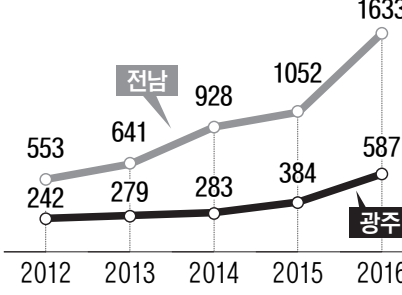
이 같은 급증세는 '가정 내 아동학대는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유치원·보육원 내 신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1574건(345, 1229건)으로 70.9%에 달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283건), 신체적 학대(220건), 성 학대(94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는 하나의 유형이 아닌 두가지 이상 중복되는 사례(651건)가 많았다. 지

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남에서 1명 발생했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광주는 총 345건 중 89.9%인 310건(친부 174, 친모 125, 계부 6, 계모 3, 양부 2건)이, 전남은 총 1229건 중 850건(친부 479, 친모 336, 계부 17, 계모, 17, 양부 1건)이 부모에

■ 광주·전남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의해 자행됐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10건 중 8건가량(77.6%)이 가정이었다. 학교·유치원·

학원 등 배움터에서도 12.8%나 발생했다.

학대 신고자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학대를 또 다른 배우자가 신고한 것이 289건, 학대아동 본인이 신고한 것이 161건, 이웃이나 친구가 신고한 것이 122건이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교직원 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98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47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44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40) 등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요한 개인정보 지킵시다” 26일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에 나선 광주시 북구 공무원들이 26일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이 담긴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처럼 비 좋은데...광산구 시간당 55mm 폭우 눈·발 침수

광주·전남 곳곳 호우경보

오늘까지 10~40mm 예보

30일부터 장마 영향권

26일 광주시 광산구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광산구 삼도동 일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4분께 광산구에는 시간당 55.5mm의 비가 내렸다. 이 비로 '빛 그린 국가 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토사가 빗물과

함께 흘러 내려 인근 도야마을과 회룡마을 등이 흙탕물로 뒤덮였다. 또, 주변의 눈과 발도 물에 잠기는 등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일강수량은 함평 월야 101mm, 영광 염산 36.5mm, 무안 해제 30.5mm, 신안 지도 26mm, 포두 15mm, 담양 11.5mm, 장성 7.5mm, 광주 1.1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30분 고흥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오후 5시와 5시 30분 광주와 고흥에 내리진 호우주의보는 오후 5시40분과 5시50분 호우경보로 대체됐다.

앞서 3시20분에 함평에 내리진 호우주의보는 오후 7시 호우경보로 대체됐다.

기상청은 26일부터 27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10~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으며 남해안지역에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7일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에는 새벽까지 비가 올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구름이 많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수량의 지역적인 차이가 크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은 29일께 북상하여 30일께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장마비는 7월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지만원 직접 고소

5·18 왜곡에 명예훼손 혐의로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왜곡·편향해온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직접 고소했다.

광주시는 윤 시장이 지만원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민주유공자단체, 유가족, 종교계 등에서 지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지만 윤 시장이 직접 고소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지씨와 지씨가 대표인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회원들이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씨가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 기사란에 이같은 내용을

사설로도 게시한 바 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윤 시장이 직접 고소장을 낸 것은 명예훼손죄가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수차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해 왔으며 김황식, 정홍원 국무총리, 국방부 등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일삼은 '자칭 보수 인사'로 보수층에게서 조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18민주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씩씩이한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인물로도 강하게 의심된다. 5·18기념재단은 밝힌바 있다. 5·18민주유공자단체 등에서 3건의 고소·고발을 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출입금지 구역 낚시 동호회원·선장 등 16명 적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낚시를 한 동호회 회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20분께 진도군 병풍도에 낚시를 하던 동호회 회원 15명과 7.31급 연안복합어선 W호(진도선적)의 선장 김모(63)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장 김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진도군 남도항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태우고 무단인도인 병풍도에 이들을 내려줬다. 동호회 회원들은 병풍도에 입도해 낚시를 즐기던 도중 주위를 순찰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단속됐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으며,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 내 출입금지가 지정된 164곳의 무인도 중 한 곳이다. 이날 광주, 목포, 진도 등에서 모인 낚시동호회 회원과 이들을 배에 태워서 섬으로 안내한 선장 김씨는 병풍도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동호회 회원들과 선장 김씨를 상대로 불법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따라 진도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

차량털이 10대 등 2명 구속

광주북부경찰청은 26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신모(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 등은 지난 6일 새벽 3시4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한 차량에서 현금 6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팔찌 등을 훔치는 등 5회에 걸쳐 총 2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이 열린 차량을 발견하면 소형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 받아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재기자 ej6621@

표류 선박 구조하고 보니...선장 무면허 운전 '들뚱'




○...면허도 없이 낚시터를 태우고 여수 앞 바다로 출항한 30대 선장이 배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표류하다가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뚱.

○...2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여수시 남면 대두라도 인근해상에 떠있던 H호(1t급 소형보트)가 기름이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

경이 출동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보트의 선장 박모(35)씨가 무면허로 배를 몰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해경은 “선장 박씨가 지인 1명과 낚시 포인트를 찾던 중 기름이 떨어져 보트가 멈췄다”며 “무면허로 운전 사실이 드러난 박씨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56조 1항의 위반 책임을 물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경매 추천 물건

- ★ [근린시설] 광주 남구 송화동 6층건물 대지457㎡ 건물 1640,12㎡ 감정가 12억 2천7백 ▶ 최저가 8억6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지2,580㎡ 건물 1,710,74㎡ 감정가 17억8천5백만 ▶ 최저가 12억5천
- ★ [공장] 광주 북구 오선동 대지 8,419.4㎡ 건물 5,746.07㎡ 감정가 89억9천9백5십만 ▶ 최저가 89억9천9백5십만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27억4천5백
- ★ [공장] 전남 장성군 황용면 월평리 대지 2,363㎡ 건물 2,489.2㎡ 감정가 25억2천9백5십만 ▶ 최저가7억7천6십만
- ★ [실버타운, 전원부지]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만 ▶ 최저가14억 1백만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최저가 3억5천8백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